

민주 “한국당 행위, 외교·안보에 치명적”

긴급 회의 열고 ‘강효상 통화누설·黃 GP발언’ 강력 규탄 이해찬 “黃발언 용납 못해”, 원혜영 “姜 범법행위 충격”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긴급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그를 옹호하는 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육군 3사단 내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정쟁 도구로 삼았다”며 “한국당이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의 제1원칙은 문민통제다. 군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황교안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은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 매우 충격적 사건”이라며 “단순히 해프닝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남북군사합의 무효화 발언도 마찬가지”라며 “군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망언 중의 망언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 해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강 의원의 기밀 유출은 무능과 탐욕, 철학부재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당의 인식 때문에 야기됐다”며 “국익이나 국민안전, 한미동맹의 공고함보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 국민 선동이 최우선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러바 ‘5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제청의 수장을 교체한 것이나 새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 역시 이런 쇄신 행보의 일환으로, 집권 중반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등 공직 기강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이날 국제청장·법제처장·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하며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고 국정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 공직후보자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포함됐다는 점을 두고, 집권 3년차를 맞아 진행된 인적교체 작업이 일단락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직 청와대 일부 비서관급 인선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3일 9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된 데 이어 이날 차관급 3명의 인선이 추가로 발표되며 조직 정비에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7-8월개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준비는 김의숙 선임 인사수석 등 새로운

文대통령, 인사수석 교체로 ‘분위기 일신’

3년차 국정동력 확보...‘원년수석’ 중 조국만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인사수석을 전격 교체하면서 공직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른바 ‘5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제청의 수장을 교체한 것이나 새 법제처장을 임명한 것 역시 이런 쇄신 행보의 일환으로, 집권 중반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등 공직 기강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이날 국제청장·법제처장·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하며 흐트러진 기강을 다잡고 국정에 매진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 공직후보자 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포함됐다는 점을 두고, 집권 3년차를 맞아 진행된 인적교체 작업이 일단락되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직 청와대 일부 비서관급 인선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3일 9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된 데 이어 이날 차관급 3명의 인선이 추가로 발표되며 조직 정비에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7-8월개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준비는 김의숙 선임 인사수석 등 새로운

인사라인이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타 임명을 잡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현욱 인사수석을 교체한 데에는 그동안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된 ‘부실 인사 검증’ 논란 역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앞서 3·8 개각 당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석보유 의혹 등으로 야권에서는 이른바 ‘조·조 라인(조국 민정수석·조현욱 인사수석)’ 사퇴 주장이 터져 나왔다. 다만 이날 조현욱 수석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인사 발표를 하고 후임자를 소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사를 문책 성격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수석은 이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실상 사과를 하면서도, 카메라 앞에서 차분하게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놓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조현욱 수석이 교체됨에 따라 청와대 내 수석보좌관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원년 멤버’는 조국 수석 한 명만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당 주최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양정철 회동·통화누설’ 공방...국회 정상화 평행선

민주, 총선개입 의혹 차단...한국·바른미래당 “부적절” 공세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회동과 한미정상 통화유출 논란이 가세하면서 정국의 경색도가 가일층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에 대해 ‘사적인 만남’일 뿐이라고 규정하고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국가정보원의 총선개입 의혹’ 공세에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

적으로 만난 것은 만난 것인데 왜 자꾸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다”며 “그런 사안까지 정보위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맞섰다.

반면 제1·2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 간 비공개 회동이 부적절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두 야당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총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선거’ 프레임으로 대어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온갖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측근 실세를 만나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가히 짐작된다”며 “국정원장이 여당 실세와 밀화한 것은 최대의 정보 관권선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총선 10개월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장이 여당의 총선 전략을 책임지는 대통령 최측근과 장시간 만남 것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비를 자초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국정원의 총선개

입 의혹을 부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 전 정보위 소집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가 안 돼도 정보위를 열 것인가’라는 물음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놓겠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당은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방침을 세우며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 광산을, 지역 정당 첫 ‘당원 원탁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광산구를 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송남수)는 광주지역 정당 최초로 ‘속의형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산구를 지역위는 지난 26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소통한 마당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원탁토론회에는 송남수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김삼호 광산구청장, 정장우 수석 부위원장, 박인화 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동별 시급한 현안과 2020

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지역위와 당원의 역할을 의제로 다뤘다.

지역위는 토론의제 선정에 위해 원탁토론회를 개최한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에 의뢰해 당원 155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5월9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했다.

송남수 위원장은 “이번 원탁토론회는 우리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당원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첫 시도”라며 “활발한 토론과 직접투표 방식으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지역위 운영과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균형위 ‘한·일·佛 균형발전 라운드테이블’ 개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G20 일본 개최와 발맞춰 2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일본·프랑스 균형발전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한국, 일본, 프랑스 3개국이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명실상부 국제협력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균형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취임 3년차를 맞아 균형발전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물론 G20의 관심 주제인 사회적 불평등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불균형-불평등’의 과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천경매

임야 단독섬

- ▶ 바로합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경매투자자

[빌딩]

- 유럽풍 최고급 상가주택
도심속 전원별장 무등산자락 2차선도로접
대지230㎡ 건335㎡ 매가:상담후결정
- 계림3지구 재개발지 대로변 상가50% 급처분
2차선도로접 대지445㎡ 건1,500㎡
급매가11억(3.3㎡당820만원)
- 사옥, 병원, 은행 건물
대인동 대단지 아파트, 대인시장인접
4차선대로변 대지515㎡ 건평2,100㎡
병원 허가병상70개
매가 : 협의후 결정(임대도 가능)
- 산수5거리 대로변 상가
대지162㎡ 건평500㎡ 급매가 7억

=====

지역별, 금액별, 종류별, 매물 다량 확보중입니다

=====

*** 빌딩, 상가, 주택, 임야등 싼매물 바로 계약합니다
===매수고객 다수 현금들고 대기중입니다.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오천경매
010-3605-5000